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령별 비교연구

이 효 숙 · 박 숙 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최근 여성들의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 욕구가 커지면서 변화가 용이하고 자기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다양성 추구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출하여 차별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성이 증시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되었고, 표현 양식이 다양해진 사회 풍조와 더불어 의복 및 화장 행동에 이어 헤어스타일까지 변화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서도 헤어스타일은 얼굴형, 연령, 체형, 직업 등에 따라 선호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헤어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행동의 선행연구(전연숙, 1999. 전용수, 2001. 신호정, 2002.)에서 다른 인구 통계적 변인들에 비해 연령에서 다양한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김희숙, 1995. 김양휴, 1996. 서운경, 2003.)에서는 변천사나 단순한 선호도조사 만을 다루었을 뿐 연령을 변수로 한 비교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적 특성 중 연령을 변수로 정하여 20대, 30대, 40대이상의 여성 3 집단을 분류하여 첫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 시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부산시내 거주하는 20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으로 총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95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응답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생머리 중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퍼머머리 중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컬러링 시 선호색상, 컬러링 이유, 사용하는 액세서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중 20대는 검은색으로 염색한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생머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선호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대부분이 여대생으로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생머리를 함으로써 청순하고 깔끔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도 민감한 시기로 헤어핀으로 장식하기를 선호하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으로 헤어 컬러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orresponding author: shpark@ks.ac.kr

30대는 진한 갈색으로 염색한 중간 길이 퍼머 머리를 가장 선호하면서 현재 착용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대인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기로 대인관계 시나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고 세련된 인상으로 호감을 주기 위해 컬러링에도 변화를 주며 헤어 액세서리 사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40대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진한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컷의 퍼머 머리를 가장 선호하면서 현재 착용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시기는 사회적·경제적·가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교모임이나 사회모임이 많은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노화기에 접어든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게 되는데 짧은 머리 스타일은 단정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며,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권영숙, 1992). 컬러링의 이유에서도 흰머리 커버를 위해 컬러링을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머리염색을 통해서도 외모를 젊게 꾸며 자기 외모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와는 다르게 헤어스타일을 결정할 때 본인이 결정하는 것, 커트가 헤어스타일을 위한 시술 중 외모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자연스럽게 내린 앞머리 형태를 선호하는 것, 동일색상으로 두발 전체를 염색하는 것, 왼쪽 가르마를 선호하는 것, 헤어제품 중 헤어로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등의 결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